

부산 출토 적색마연평저호의 검토*

배진성**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분묘
- III. 적색마연평저호 관찰
- IV. 형식과 분포
- V.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인식
- VI. 맺음말

| 국문초록 |

현재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분묘는 약 50여기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고 종류도 다양하며, 대규모 분묘군도 확인되는 등 이전에 비해 자료적 여건이 나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석관묘의 가장 큰 특징은 단벽 쪽에 부장칸을 설치하고 적색마연평저호 한 점을 부장한 점이다. 이 토기에는 마연과 목리가 보이며, 기형은 후기의 적색마연호에 일반적인 원저가 아닌 평저라는 점이 특이하다. 태토는 전형적인 적색마연토기에 비해 정선도가 떨어지며, 적색마연토기에 공렬문이 시문되는 점도 특이하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적색마연토기는 한반도 내에서 부산지역에서만 확인된다. 분포의 중심은 현재의 부산 도심에 해당하는 수영강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 gogocult@pusan.ac.kr

일대이며, 강서구 일대까지 분포범위를 넓혀 볼 수 있지만 동쪽의 기장지역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안지역부터 강서구까지 분포하는 함안식적색마연호와 대비하는 의미에서 부산식적색마연호라는 형식명을 부여할 수 있다.

부산지역 청동기시대에 대해 주거지의 분포를 통해 송국리문화와 점단리문화가 공존하는 점이지대라는 견해가 있고,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다. 그러나 타 문화의 주변부적인 특징보다는 부산만의 독자적인 특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산식적색마연호인 적색마연평저호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의 중심권역은 송국리형 주거지와 울산식주거지가 모두 확인되는 동시에 적색마연평저호의 분포권에서도 중심부에 해당하는 수영강 일대로 판단된다. 특히 대규모 분묘군이라 할 수 있는 온천2동유적에서 고품질의 부산식적색마연호가 출토되는 점에서, 수영강 일대 중에서도 현재의 온천동은 청동기시대 후기 부산지역의 중심적인 취락지일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점이지대론, (공렬문)적색마연평저호, 수영강 일대가 중심권역이라는 점을 통해 앞으로 청동기시대 후기의 부산지역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부산식적색마연호, 적색마연평저호, 점이지대, 부산, 수영강

I. 머리말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자료를 보면 유적의 수도 많고 분포권도 넓은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시대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구석기시대에는 해운대 좌동·중동유적, 신석기시대에는 동삼동유적, 삼국시대에는 복천동고분군이라는 대표적인 유적이 있지만, 청동기시대에는 그러한 표지유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대보다 그 성격이 불투명하였는데¹⁾, 근래에 와서는 자료의 증가와 함께 부산지역의 특징을 밝히려는 연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최근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분묘에서 출토되는 적색마연

1)釜山廣域市立博物館福泉分館,『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1997,139쪽.

호에 주목하고자 한다. 2011년 해운대 석대동유적 발굴현장에서 분묘의 부장품으로서 공렬문이 시문된 적색마연호를 처음 본 것이 계기였던 것 같다. 적색마연토기에 공렬문이 시문된 점과 송국리단계의 부장용 적색마연호는 대부분 圓底인데 비해 석대동 출토품은 모두 平底인 점이 특이하였고, 다른 지역의 경우 전기 분묘에는 평저의 적색마연호가 보이지만 후기의 분묘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이와 유사한 자료가 인근의 여러 유적에서 잇따르면서 부산지역 청동기시대의 특징으로 부각시킬만한 자료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주거지 등의 생활유구에서는 출토되지 않는 이 토기에 대해 이미 부산지역 분묘 부장의 특징이자 청동기시대 후기의 표지유물로 주목된 바 있다.²⁾ 이제 그 분포권을 제시할³⁾ 수 있을 정도의 수량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연구를 발전적으로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이 토기는 적색마연토기로 보고되기도 하고 일반 무문토기로 보고되기도 하여 우선 실물 관찰과 이를 통한 특징 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토기 및 해당 분묘에 보이는 지역적 특징을 제시하고, 형식의 설정과 시기 및 분포권을 파악한 후,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지역성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Ⅱ.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분묘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분묘는 기존의 현황표⁴⁾에 제시된 25기에서

2) 이수홍, 『釜山 青銅器時代 後期文化의 地域相』, 『港都釜山』 28, 2012. 안재호 교수의 조언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3) 복천박물관, 『변진독로국』(2018 복천박물관 학술연구총서), 2018, 27쪽.

4) 서영남, 『釜山의 青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港都釜山』 17, 2001, 42쪽. 이수홍, 앞의 논문, 2012, 116쪽.

최근 확인된 여러 유적을 포함하면 50여기에 이를 정도로 많아졌다. 시기는 모두 후기인 송국리단계에 해당하며 전기의 분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발굴조사 된 것은 대부분 2000년대 이후로서 미음동 분절유적⁵⁾과 온천2동유적⁶⁾에서는 구획묘를 포함한 대규모 분묘군이 확인되어, 부산지역 청동기시대의 역동성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예전부터 알려져 온 사직동⁷⁾과 괴정1·2동⁸⁾에 더해 노포동⁹⁾과 명장동¹⁰⁾ 및 기장 고촌¹¹⁾과 대라리유적¹²⁾ 등이 추가되는데, 부산지역 석관묘의 특징은 다음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두구동에서는 임석유적¹³⁾ 이래 최근 송국리형주거지를 파괴하고 설치된 석관묘 한 기가 확인되었다.¹⁴⁾ 이 분묘에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동단벽 앞에 판석 한 매를 세워 부장칸을 만들고 그곳에 호형토기를 부장한 점이다(그림 1의 5). 연지동·온천2동·석대동·망미동 석관묘에도 이와 유사한 특징이 보이는데, 연지동 다지구¹⁵⁾의 경우 1호묘에는 시상석이 깔리지 않은 단벽 쪽에 판석을 돌렸으며(그림 1의 4), 2호묘에는 단벽과 장벽 사이에 의도적으로 빈 공간을 두었다(그림 1의 3). 석대동¹⁶⁾ 19호묘(그림 1의 1)와 온천2동 2호 할석석관묘는 한쪽 단벽과 묘광 사이에 판석으로 부

5)釜山博物館,『分節遺蹟』,2013.

6)서울문화유산연구원,『부산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2018.

7)金廷鶴,『無文土器文化』,『韓國の考古學』,河出書房新社,1972,100쪽.

8)金廷鶴,위의 책,101쪽.

9)釜山大學校博物館,『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연양-부산)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1998. 동양문물연구원,『부산 노포동 91-6번지 유적』,2017.

10)한겨레문화재연구원,『釜山 鳴藏洞 556-17番地 遺蹟』,2012.

11)慶南文化財研究院『古村遺蹟(Ⅰ地區)』,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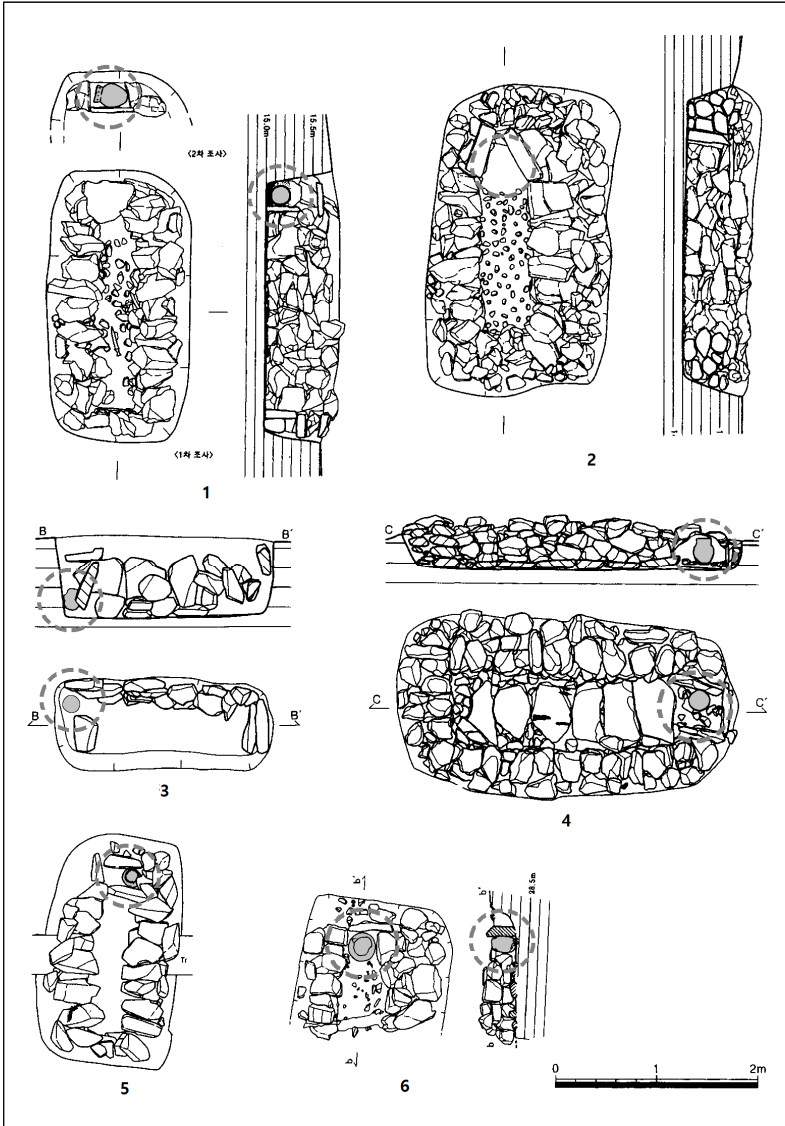
12)慶南文化財研究院,『기장 청강·대라리 유적(Ⅲ지구)』,2011.

13)釜山直轄市立博物館,『釜山 杜邱洞 林石遺蹟』,1990.

14)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釜山 杜邱洞聚落』,2018.

15)동양문물연구원,『부산 연지동유적(A·B구역)』,2013.

16)蔚山文化財研究院,『釜山回東洞·石垵洞遺蹟』,2013..



<그림 1> 부장칸이 설치된 분묘(1: 석대동 19호, 2: 석대동 20호, 3: 연지동 2호, 4: 연지동 1호, 5: 두구동, 6: 망미동, 1/80)

장간을 마련한 구조이며, 특히 석대동 19호묘에는 부장간에 사용된 석재 사이의 틈을 고운 점토로 밀봉하고 부장토기 아래 바닥면에도 두께 6cm의 점토를 깔았다. 석대동 20호묘의 시상석이 깔리지 않은 단벽 쪽도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지만 부장공간으로 판단된다(그림 1의 2). 망미동에서는 부장토기의 폭에 맞추어 단벽 쪽에 부장간을 마련하였다(그림 1의 6).¹⁷⁾

위의 분묘 중에는 지석묘 하부구조에 해당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상석이 있는 지석묘의 발굴조사는 2010년 미음동 분절유적이 처음이다. 이 유적은 지표조사에서 확인된¹⁸⁾ ‘분절지석묘’가 있던 곳으로, 20여 개로 깨진 상석이 당산나무 두 그루를 중심으로 모여 있었다. 부산 곳곳에 지석묘가 존재하였음은 가덕도 두문¹⁹⁾ · 감천동²⁰⁾ · 장전동²¹⁾ 등에서 이전부터 알려져 왔고, 사직동 · 온천동 · 부곡동 · 금사동 · 수영동 · 동래 · 반송동 · 대신동 출토 석검도 주로 지석묘 출토품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분포상에서 부산지역은 지석묘의 공백지대처럼 되어 있지만 남한의 여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석묘가 다수 존재하였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청동기시대의 부산에는 옹관묘 외에는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여러 종류의 분묘가 활발하게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드러난 양상을 통해 주변 지역과의 차이점을 보면, 우선 주거지 대비 분묘의 비율이 높은 점을 들 수 있다.²²⁾ 잘 알려져 있듯이 울산지역은 주

17) 慶南文化財研究院, 『東萊 古邑城址』, 2007.

18) 釜山直轄市立博物館, 『伽倻文化圈遺蹟精密調査報告書』, 1991.

19)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加德島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2.

20) 朴商憲, 『釜山市 甘川洞 支石墓』, 『考古美術』 7-1, 1966.

21)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の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第二冊, 1959.

22) 황창한 · 정대봉, 『부산의 청동기문화』, 『기장 장안인의 옛 흔적』(기장 명례일반산업단지 발굴조사 기념도록), 울산문화재연구원 · 부산박물관 · 울산대학교박물관, 2013, 255쪽.

거지에 비해 분묘의 수량이 매우 빈약하며, 양산이나 김해지역 등도 주거지 대비 분묘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물론 부산지역에서 대규모 취락의 조사가 늘어나면 주거지의 비율이 높아지겠지만, 그렇다 해도 울산·양산지역에 비해서는 분묘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한쪽 단벽에 마련된 부장칸을 들 수 있다. 단벽 쪽의 토기부장 자체는 여타 지역에도 일반적이며, 확실하게 부장칸을 구분한 것은 밀양 남전리유적²³⁾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부산 도심 일대와 같은 한정된 공간적 범위에 이러한 유적이 밀집해 있는 사례는 드물다. 이 부장칸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적색마연평저호 한 점이 부장되며, 유구의 구조와 더불어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표지자료로 인식되었다.²⁴⁾ 이하에서는 이 토기를 통해 청동기시대 부산지역의 특징을 좀 더 선명히 하고자 한다.

Ⅲ. 적색마연평저호 관찰

1. 적색마연토기의 판별

적색마연이 분명한 괴정2동 토기(그림 2의 2)에 비해 괴정1동 토기는 최초의 보고문에서 적색마연토기가 아닌 일반 무문토기로 알려진(그림 2의 1) 이래 이후의 여러 논고에서도 그렇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구경부와 동체부에서 ‘산화철’²⁵⁾인 적색안료의 존재를 분명히 관찰할 수

23) 沈奉謹, 『密陽 南田里와 義昌 平城里遺蹟 出土遺物』,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1984.

24) 이수홍, 앞의 논문, 2012.

25) 한반도 적색마연토기의 붉은색 안료는 ‘丹(HgS)’이 아니라 ‘酸化鐵(Fe2O3)’로 밝혀졌으며, 아래의 문헌에 관련 연구 현황이 잘 정리되어 있다. 宋永鎮, 『韓半島 青銅器時代 磨研土器 研究』, 慶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6, 31~33쪽.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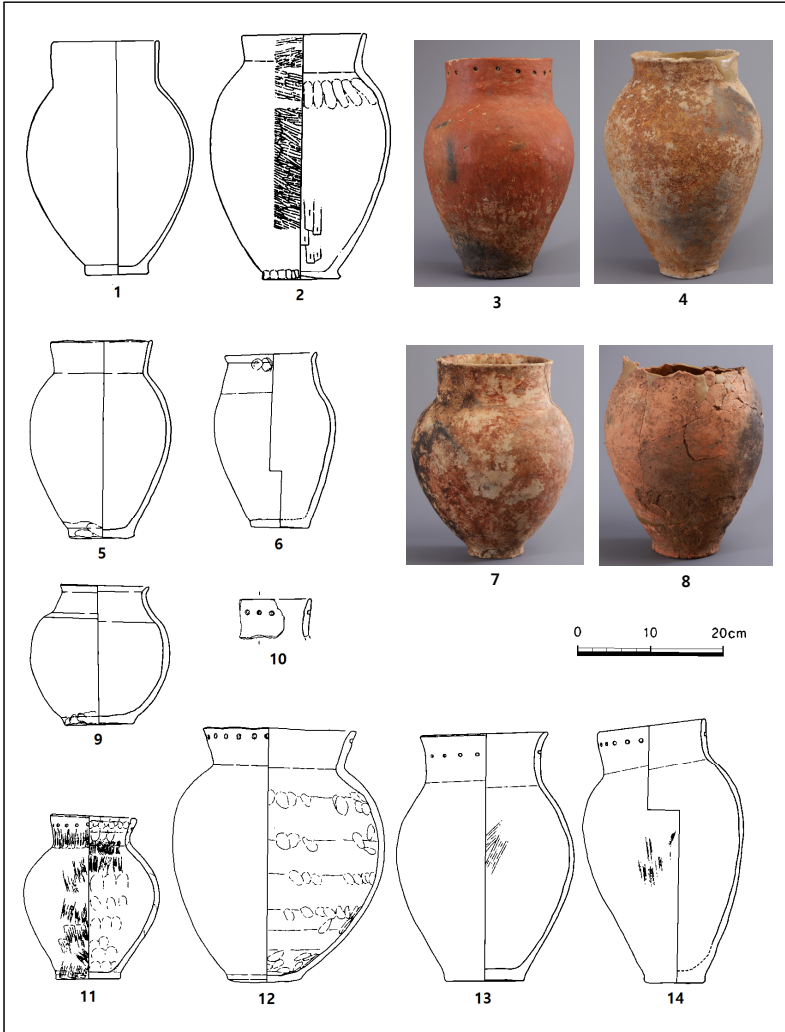
석대동 17호묘 토기(그림 2의 14)는 전체적으로 표면 산화박리되었고 표면의 얇은 막이 남아 있는 부분에는 흙이 흡착되어 원래의 색조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는 적색안료의 흔적으로 판단된다. 흙을 완전히 제거하면 붉은 막 자체가 손상될 정도로 표면 상태가 불안정하다. 19호묘 토기(13)는 보고문에도 기술되었듯이 마연흔과 함께 외면에 적색안료의 흔적이 뚜렷하다. 20호묘 토기(10)는 공렬문 바로 아래에 적색안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일부 보인다.

연지동 1호묘 토기(5)는 적색안료의 잔존상태가 양호하다. 2호묘 토기(9)는 전반적으로 표면 산화박리되었지만 보고문에도 기술되었듯이 부분적으로 적색안료가 남아 있다. 3호묘 토기(6)는 표면의 막이 남아 있는 곳에 흙이 흡착되어 적색안료의 흔적을 분명하게 관찰하기 어렵지만, 석대동 17호묘 토기(14)처럼 적색안료로 인해 흙이 흡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보고문과 같이 적색마연토기로 판단하고자 한다.

온천2동 1호묘 토기(7)는 표면 산화박리되었지만 적색안료가 남아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2호묘 토기(3)는 부산 출토 적색마연평저호 가운데 적색안료가 가장 선명하고 표면의 막도 두껍다. 3호묘 토기(4)도 표면 산화박리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적색안료의 부착이 확인된다.²⁶⁾

망미동 석관묘 출토품(12)은 적색안료나 마연에 대한 언급 없이 호형의 무문토기로 보고되었다. 표면이 전체적으로 산화박리되었지만 구경부 내외면과 동체부 중상위에 적색안료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

26) 온천2동 출토품에 대한 내용의 상당 부분은 도록용 사진(북천박물관)에 의한 관찰이다. 발굴현장에서 접한 이후 이 논문을 위해 추가로 실견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오류나 미비한 점이 있다면 추후 발간될 보고서를 통해 바로잡히기를 희망한다.



<그림 2> 부산 출토 적색마연평저호(1: 괴정1동, 2: 괴정2동, 3: 온천2동 2호, 4: 온천2동 3호, 5: 연지동 1호, 6: 연지동 3호, 7: 온천2동 1호, 8: 온천2동 1호(판석석관묘), 9: 연지동 2호, 10: 석대동 20호, 11: 두구동, 12: 망미동, 13: 석대동 19호, 14: 석대동 17호, 1/10)

표면 박리가 심한 동체부 중하위에도 적색안료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다. 원래부터 적색안료가 얇게 도포되었고 이후의 표면 산화 박리로 인해 즉각적으로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이 토기는 적색마연토기가 분명하다.

두구동 석관묘 출토품(11) 역시 호형의 무문토기로 보고되었지만, 구정부에서 저부에 이르기까지 부분적으로 적색안료의 흔적이 관찰된다. 망미동 출토품과 마찬가지로 적색안료의 도포 자체가 얇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외면과 구정부 내면의 전체적인 색조가 주황색에 가까운 적갈색인 점은 적색안료의 영향인 것 같다. 따라서 이 토기도 적갈색의 호형 토기가 아니라 적색마연호이다.

2. 마연과 목리

표면의 정면기법으로는 마연흔과 목리흔이 관찰된다. 마연은 표면 상태에 따라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시된 것으로 판단되며, 마연단위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다. 이에 비해 괴정2동(2)과 온천2동 2호묘 토기(3)는 목리흔은 보이지 않고 거의 전면에 걸쳐 치밀하게 마연되었다.²⁷⁾ 이 두 토기는 전형적인 적색마연토기의 정면기법을 보이고 있어 부산 출토 적색마연평저호 가운데 가장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목리 및 목판문지르기(목판긋기)는 사천 늑도유적의 토기에 가장 뚜렷하며 영남지역의 일상용 무문토기에도 종종 보인다. 이에 비해 분묘 출토 적색마연호의 경우 내면에는 간혹 목리가 있지만 외면에는 매우 드문데, 부산의 적색마연평저호에는 외면에도 자주 보인다. 가장 뚜렷

27) 특히 온천2동 2호묘 토기는 부위별 마연방향의 차이까지 알 수 있는데, 구정부 내외면에는 횡방향(부분적으로 종방향), 경부와 동체부의 경계에는 횡방향+사방향, 동체부에는 주로 종방향이지만 부분적으로 횡방향의 마연흔이 보인다(그림 2의 3).

한 것은 두구동 출토품으로(11), 도면에도 드러나듯이 구경부에서 저부에 이르는 외면 전체와 구경부 내면에 잘 남아 있다. 구경부 외면의 목리흔이 가장 정연하고 뚜렷해서 이 부분에 정성을 기울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연지동 2호묘 토기(9)는 목리정면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동체부에 물손질과 구분되는 폭 1cm 정도 세로방향의 정면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연지동 3호묘 토기(6)에도 동체부에 물손질과는 다른 세로방향의 정면흔이 관찰되는데, 현재의 상태로는 정면도구의 단위(폭)를 알 수 없지만 위의 사례에 비추어 목리정면흔으로 추정된다. 석대동 17호묘 토기(14)는 동체부의 목리정면흔에 더해 구경부에도 목리흔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석대동 19호묘 토기(13)는 보고문에 제시된 동체부 내면의 목리흔과 함께 외면에도 세로방향의 목리흔으로 추정되는 곳이 부분적으로 관찰된다. 온천2동 3호묘 토기(4)는 구경부에 목판으로 된 정면도구의 가장자리 흔적이 잔존하는 점에서 목리보다는 목판문지르기(목판 긁기)로 추정되며, 동체부에는 마연흔과 목판문지르기흔(목리?)이 혼재하는 듯하다. 괴정1동 토기(1)는 동체부 외면 하단에 목판문지르기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표면 상태가 좋지 않아 확실하지 않고, 괴정2동 토기(2)에는 내면에 목판문지르기가 보인다. 목리와 목판문지르기는 기면에 남은凹凸의 형태 차이로 구분하는데²⁸⁾, 목판문지르기는 목리에 비해 시문구의 가장자리와 그 안쪽의凹凸이 서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지만, 양자는 기본적으로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기법이다.

3. 평저 · 태토 · 공렬문

기형을 보면 저부는 平底이며 구경부는 直立 및 外傾하는 형태가 전형적이고 일부 外反하거나 內傾하는 것이 있다. 구연부는 끝 부분에서

28)釜山大學校博物館,『勒島住居址』,1989.

짧게 외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구경부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동체부는 다소 세장하며 동최대경은 (중)상위에 있다. 남한지역 후기의 분묘 출토 적색마연호는 圓底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 <그림 2>의 토기는 모두 평저라는 점이 특이하다.

태토는 여타 지역의 전형적인 적색마연토기에 비해 精選되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괴정1·2동과 연지동·온천2동 토기는 비교적 정선된 편이지만 粗粒의 石粒이 일부 함유되었다. 망미동 출토품은 태토에 가장 흔한 입자인 장석도 비교적 굵은 편이며 석영을 비롯한 조립질 석립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12). 이 토기는 기고 36cm에 이르는 비교적 대형 급이어서 소형급의 적색마연토기에 사용되는 정선된 태토를 적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적색마연토기에 어울리는 태토는 아니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석대동 및 두구동 출토품도 조립질의 석립을 적지 않게 함유하고 있어서 정선된 태토로 보기는 어렵다. 즉 부산지역 적색마연평저호의 태토는 일상용 무문토기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연단 바로 아래에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 한 공렬문이 등간격으로 연속 시문된 점도 특이하다(3·10~14). 부산 이외 지역의 경우 공렬문이 시문된 호형토기는 주거지에서 간혹 출토되지만 분묘 부장품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고, 적색마연토기에 공렬문이 있는 경우도 드물다.

IV. 형식과 분포

이상과 같이 부산지역 석관묘의 단벽 쪽에 판석을 이용한 방형의 부장칸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호는 다른 지역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장용의 적색마연토기임에도 평저·공렬문·목리·태토에서 일상용 무문토기의 요소가 많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적색마연평저호는 구경부의 형태나 규격 및 공렬문의 유무 등에 따라 세분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분류 그 자체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연지동 1·2·3호묘 토기(5·9·6)를 I~Ⅲ型式으로 나눈다고 해서 편년이나 지역성 및 부장양상에 어떤 차이를 드러내기는 어렵다. 形式(器種) 아래에 小形式을 두고 다시 그 아래에 類와 型式을 세분하는 방법도 있지만²⁹⁾,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림 2>의 토기 전체를 하나의 型式으로 보면서 청동기시대 후기의 부산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型式名은 경남의 함안지역에서부터 서부산지역까지 분포하는 ‘함안식적색마연호’³⁰⁾(그림 3의 2~5·9·10)와 대비하는 차원에서 ‘부산식적색마연호’로 명명하고자 한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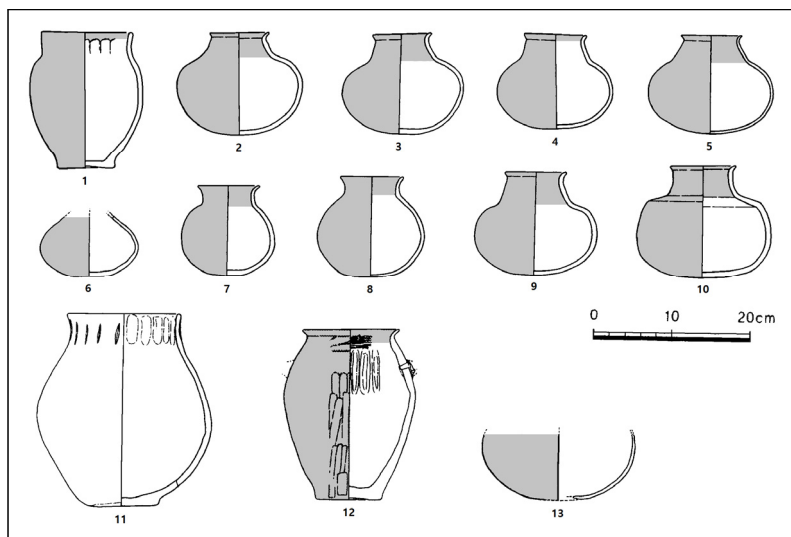
적색마연평저호는 <그림 4>에서 보듯이 현재의 부산 도심 일대에 집중되어 있어 매우 한정적이면서 뚜렷한 분포권을 이룬다. 서쪽으로는 강서구 미음동 분절유적이 가장 외곽에 해당되며, 동쪽의 기장지역에는 분포하지 않는다. 특히 분절유적의 원저호(그림 3의 2~10)와 도심 일대의 평저호(그림 2)는 확연하게 구분된다. 분절유적에서 평저호는 1호묘 토기(그림 3의 1) 한 점뿐이며, 그 외는 함안식적색마연호(2~5·9·10) 위주의 원저호이다. 분절유적의 적색마연평저호는 구경부에 중방

29) 裴孝元, 「5世紀代 釜山地域 墳墓出土 大壺의 副葬樣相과 意味」, 『考古廣場』 22, 2018,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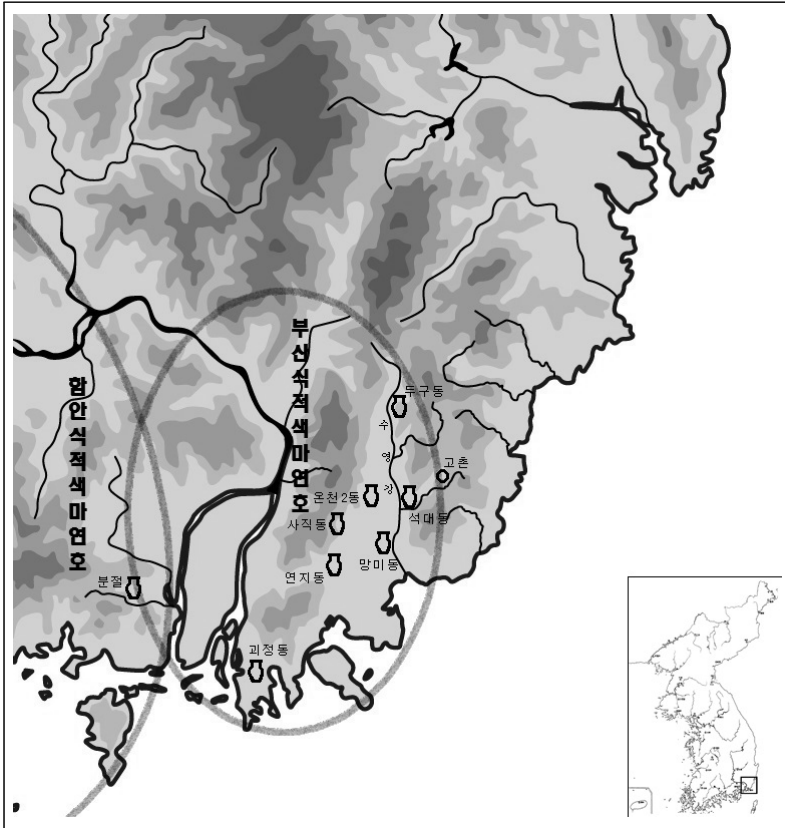
30) 배진성, 「咸安式赤色磨研壺의 分析」, 『韓國民族文化』 32, 2009.

31) 투고 이후 개최된 학술대회의 아래 발표문처럼 유적명을 이용한 ‘연지동식토기’도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명칭은 특정의 부장용 적색마연호에 한정하기 보다는 생활유구까지 포함하여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을 대표하는 型式이나 樣式을 파악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V장의 마지막 문장도 이러한 의미와 상통한다. 이수홍,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문화 검토」, 『땅 속에서 찾아낸 부산역사의 재발견』(제40회 부산 시민의 날 기념 2019 학술심포지엄), 부산박물관, 2019.

향의 목리흔이 있어 부산식적색마연호의 속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가장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온천2동·연지동·괴정동 토기에 비하면 규격에서 차이가 크고 분절유적에서도 주류 토기는 아니다. 강서구 미음동 일대는 함안식적색마연호의 분포권에 들어가는 곳으로서, 부산식적색마연호 분포권의 가장 외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기장지역의 경우 석관묘에서는 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으며, 고촌 I 지구의 토광묘에서 원저호(그림 3의 13)가 출토되었기 때문에 적색마연평저호의 분포권에 속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강서구와 기장군의 경우 추후의 자료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현재의 부산 도심 일대가 부산식적색마연호 분포권의 중심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림 4>는 비교적 안정적인 분포로 판단된다.



<그림 3> 부산 출토 적색마연토기(1~10: 미음동 분절, 11: 사직동, 12: 괴정1동 패총, 13: 기장 고촌, 1/10)



<그림 4> 부산식적색마연호의 분포

부산식적색마연호 분포권 내의 분묘 출토품 중에는 사직동 출토 단사선문평저호(그림 3의 11)도 있는데, 이 토기는 적색마연토기가 아닌 일반 무문토기로 알려져 왔다. 관찰 결과 구연부와 동체부 中位에 암적갈색의 얇은 막이 일부 보이는데, 표면 산화박리가 심하여 이것이 적색안료의 흔적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기형적으로는 적색마연토기에 어울리며, 조립의 석립이 일부 있지만 일반적인 무문토기에 비

해 정선된 태토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적색마연토기의 범주에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괴정1동패총의 파수부적색마연평저용(그림 3의 12)은 패각층 아래의 부식토층에서 출토된 것으로 杉原莊介에 의해 소개된³²⁾ 것을 재복원하여 실측한 것이다.³³⁾ 분묘 출토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후의 부산지역 사례에서도 꼭지형파수는 보이지 않지만, 기벽이 두껍고 태토에 조립질의 석립이 다량 함유되었으며 내외면에 목리와 목판굽기흔이 있는 점은 부산식적색마연호와도 상통한다. 현재로서 이후의 추가 자료가 없는 이 두 토기는 일단 부산식적색마연호 분포권 내에서 예외적·돌연변이적인 것으로 추정해 둔다.

한편, 부산지역 이외의 사례로는³⁴⁾ 경남 고성 봉동리 동촌유적의 석관묘에서 출토된 두 점의 적색마연호 가운데 한 점의 적색마연평저호가 있다.³⁵⁾ 기형은 부산식적색마연호와 유사하지만 두 점 세트 부장은 서부경남지역의 가지무늬토기에 해당되는 습속이어서³⁶⁾, 여러 지역의 영향이 혼합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리고 부산식적색마연호의 시기에 대해서는 근래의 조사 현황과 편년 연구에 비추어 볼 때, 울산지역의 경우 전기 무문토기의 주요 문양인 공렬문이 후기까지 존재하며, 특히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 된 것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러한 공렬문이 시문된 호형토기는 부산의 조도패총을 비롯하여 양산·울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지에서도 출토되었다. 괴정2동의 적색마연평저호에 대해서는 후기 전반과³⁷⁾ 후기 후반으

32) 杉原莊介, 『日本農耕社會の形成』, 吉川弘文館, 261~268쪽, 1977.

33) 尹郢映, 「釜山 槐亭洞貝塚出土 丹塗磨研土器」, 『古文化』 40·41合輯, 1992.

34) 사천 이금동 51호묘에서 출토된 구순각목이 있는 평저의 무문토기 호는 기형적으로 일견 유사해 보이지만 공반된 석검과 석촉에서 전기가 분명하므로 부산식적색마연호와는 시기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무관하다.

35) 부경문화연구원, 『固城 鳳東里 東村遺蹟』, 2016.

36) 禹枝南, 「彩文土器의 연구 현황」, 『固城 頭湖里 遺蹟』, 慶南考古學研究, 2000.

37) 河仁秀,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9.

로³⁸⁾ 편년된 바 있다. 근래 출토된 (공렬문)적색마연평저호의 시기에 대해 후기 전반으로 보거나³⁹⁾, 울산 매곡동 복합유적 79호 주거지⁴⁰⁾ 출토 호형토기와 기형적으로 유사한 점에서 후기 후반으로 편년하기도 하였다.⁴¹⁾

적색마연평저호가 출토된 분묘 가운데 분절 1호묘 및 석대동과 두구동 석관묘는 울산식주거지 또는 송국리형주거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기 때문에 후기에서도 이른 시기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괴정2동의 적색마연평저호와 공반된 석검은 김해 무계리 출토품처럼 심부와 병두부의 돌출이 심한 것으로 영남지역 석검 편년에서 가장 늦은 단계에 위치하는 형식이다.⁴²⁾ 따라서 부산식적색마연호는 유구의 중복관계와 공반유물 및 기형의 비교에서 중심 시기는 후기 후반이며 괴정동의 석검을 고려하면 하한은 더 늦을 것으로 판단된다.

V.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인식

부산지역의 청동기시대 연구는 현황과약 위주에서 근래에는 지역성 연구로 나아가고 있다. 회동동·석대동·노포동을 비롯하여 기장 방곡리·반룡리 등에서 세장방형주거지가 확인되고 있지만, 아직 전기의 특징은 명료하지 않다. 그에 비하면 후기는 자료가 양호한 편이어서 지역성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양산지역과 함께 부

38) 安在晧,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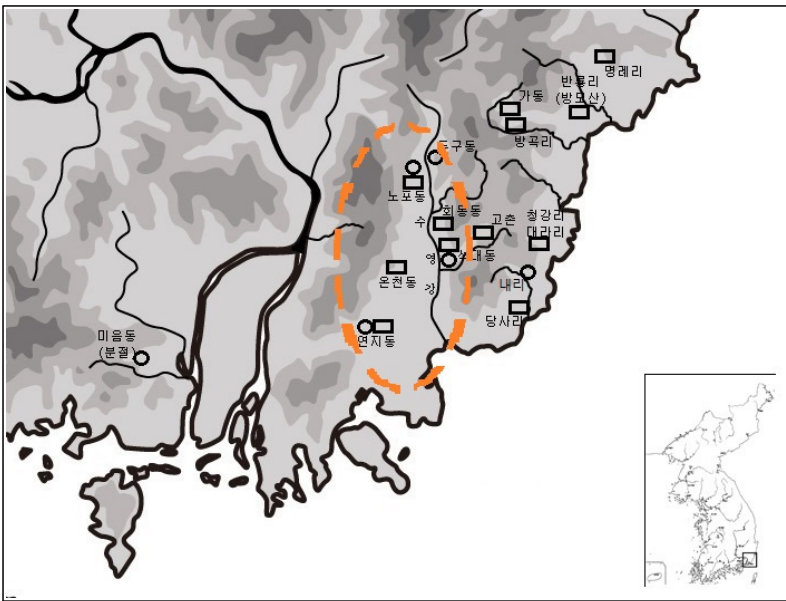
39) 蔚山文化財研究院, 앞의 책, 2013, 227쪽.

40)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蔚山 虎溪·梅谷洞 複合遺蹟(上)』, 2011.

41) 東洋문물연구원, 위의 책, 2013, 487쪽.

42) 沈奉謹, 『日本 彌生文化 初期의 磨製石器에 대한 研究 -韓國 磨製石劍과 關聯하여-』, 『嶺南考古學』 10, 1989. 朴宣映, 『南韓 出土 有柄式石劍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4.

산지역은 송국리문화와 검단리문화가 공존하는 접변지역이라는 견해이다.⁴³⁾ 이 견해 이후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주거지가 송국리형 주거지와 (장)방형주거지로 대별되는 점에 근거하여 타 지역에 중심을 둔 두 문화의 접변지역 혹은 점이지대라는 특징이 많이 거론되고 있다.⁴⁴⁾ 이 점이지대론은 열악한 자료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부산지역 청동기시대의 특징을 적출한 견해로 평가받을만하다.



<그림 5> 부산지역 송국리형주거지(○)와 울산식주거지(□)의 분포

- 43) 李秀鴻,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的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앞의 논문, 2012.
- 44) 황창한·정대봉, 앞의 책, 2013. 蔚山文化財研究院, 위의 책, 2013. 동양문물연구원, 위의 책, 2013. 황창한, 『청동기시대 석기로 본 부산의 지역성』, 『港都釜山』 31, 2015. 동양문물연구원, 앞의 책, 2017.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8, 앞의 책, 2018. 복천박물관, 위의 책, 2018.

그런데 최근 확인된 자료까지 포함하여 주거지의 분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그림 5), 평면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는 대부분 서부산지역에서 부산의 도심부를 종단하는 수영강 일대까지 분포하며, 그 以東의 기장지역에는 내리유적 단 한 곳에서만 확인되었다. 반면, (장)방형주거지는 온천동과 연지동을 서쪽한계로 하여 그 以西지역에는 분포하지 않는다.⁴⁵⁾ 좀 더 안정적인 분포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의 개체수가 늘어나야 하겠지만,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자료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보면 송국리형주거지와 (장)방형주거지⁴⁶⁾가 모두 확인되는 곳은 수영강 일대뿐이며, 양자가 한 유적에 공존하는 사례(노포동, 석대동, 연지동)도 이 일대에서만 확인된다(표 1, 그림 5). 현재의 부산지역 전체를 하나의 범위로 보면 그 속에서 두 문화의 주거지가 혼재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러한 양상은 수영강을 중심으로 한 한정된 범위에서만 확인될 뿐이다.

한편, 유물에 의한 견해로서 괴정동패총 적색마연평저용(그림 3의 12)의 재보고를 통해 구연이 짧게 외반하는 기형은 송국리문화의 영향이며, 꼭지형파수가 부착된 점은 영남 재지문화로 볼 수 있으므로, 이 토기는 두 문화의 복합인 동시에 부산지역에 송국리문화가 파급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된 바 있다.⁴⁷⁾ 집단리문화가 인식되기 이전에 제시된 이 견해는 토기의 재실측과 관찰을 통한 고고학적 해석의 좋은 사례로서 위의 점이지대론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45) 최근 김해 안하리유적 등에서도 장방형주거지가 확인되었다는 정보가 있는데, 서부산지역에서도 확인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46) 부산지역의 (장)방형주거지는 주로 울산식주거지로 인식되는데, 외부돌출구가 확인되지 않거나 파괴되어 완전한 형태를 알 수 없는 것도 적지 않아서 이러한 것을 모두 전형적인 울산식주거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황창한·정대봉, 2013, 위의 책, 249쪽. 그러나 6주식 혹은 4주식의 (장)방형주거지가 울산식주거지에 해당할 가능성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일단은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와 구별하는 의미에서 후기의 (장)방형주거지를 울산식주거지의 범주에 넣고자 한다.

47) 尹郁映, 앞의 논문, 44쪽, 1992.

〈표 1〉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주거지의 대별

주거지 유적	송국 리형	(장) 방형	참고문헌
미음동	1		한겨레문화재연구원, 2013, 『釜山 美音洞 1180番地 遺蹟』.
미음동 분절	2		釜山博物館, 2013, 『分節遺蹟』.
두구동	6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8, 『釜山 杜邱洞聚落』.
연지동	5	2	동양문물연구원, 2013, 『부산 연지동유적(A·B구역)』.
노포동 (여러 차례 조사되어 왔는데, 모두 동일 취락의 주거지로 판단된다)	2	18	釜山大學校博物館, 1988, 『釜山老圃洞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988, 『釜山老圃洞遺蹟Ⅱ』.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7, 『老圃洞 遺蹟』. 동양문물연구 원, 2017, 『부산 노포동 91-6번지 유적』. 부산박물관, 2018, 『노포동고분군 2차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석대동	10	6	蔚山文化財研究院, 2013, 『釜山回東洞·石垓洞遺蹟』.
온천동		5	釜山博物館, 2013, 『東萊 溫泉洞遺蹟Ⅱ』.
회동동		1	蔚山文化財研究院, 2013, 『釜山回東洞·石垓洞遺蹟』.
기장 내리 339-5	2		국보학술문화연구원, 2018, 『기장 내리 339-5번지 유 적』.
기장 고촌		1	慶南文化財研究院, 2009, 『古村遺蹟(Ⅲ地區)』.
기장 가동		6	울산대학교박물관, 2008, 『기장 가동유적Ⅰ』. 부경문 물연구원, 2014, 『機張 佳洞 古墳群』.
기장 당사리		1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5, 『機張 堂社里 188-1番地 遺蹟』.
기장 반룡리 방모산		13	한국문물연구원, 2017, 『機張 盤龍里 방모산遺蹟』.
기장 반룡리		3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機張 盤龍里遺蹟Ⅱ』.
기장 방곡리		6	울산대학교박물관, 2007, 『機張 芳谷里遺蹟』
기장 청강리		3	福泉博物館, 2009, 『機張 淸江里遺蹟』.
기장 대라리		1	慶南文化財研究院, 2010, 『기장 청강·대라리 유적(Ⅰ 지구)』
기장 명례리		1	蔚山文化財研究院, 2013, 『機張鳴禮里遺蹟』.
계	28	67	

어쨌든 서로 다른 계통의 주거지가 부산지역 전체는 아니지만 수영강 일대에서 혼재하며, 괴정동패총의 토기에도 두 문화의 요소가 결합된 것을 보면, 점이지대적인 모습이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의 한 특징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것이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특징일까? 점이지대적인 특징은 부산의 지역성보다는 다른 고고학적 문화의 주변부라는 인식이 더 강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점이지대적인 특징은 그것대로 수용하면서 부산을 대변하는 독자적인 특징으로서 부산식적색마연호, 즉 (공렬문)적색마연평저호를 중시하고자 한다. 공간적으로는 타 문화의 주거지가 혼재하는 동시에 부산식적색마연호 분포권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수영강 일대가 주목된다. 온천2동 2호묘 토기는 부산식적색마연호 가운데 적색안료가 가장 선명하고 두껍게 도포되었으며(그림 2의 3), 정선된 태토와 함께 목리 대신 치밀한 마연으로 정면된 고품질의 토기이다. 구획묘와 석관묘를 비롯한 분묘 18기가 확인된⁴⁸⁾ 온천2동유적은 부산식적색마연호 분포권 내에서 가장 대규모 분묘군에 해당한다. 이러한 유적에서 최상급의 공렬문적색마연평저호가 출토된 점을 생각하면, 온천2동 분묘군을 포함하는 이 일대의 취락은 청동기시대 후기 부산지역의 중심적인 취락일 가능성이 높다.⁴⁹⁾ 지표조사 결과에서도 수영강과 온천천 일대에 유적의 밀집도가 높아서 해안지대가 중심이었던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청동기시대에는 동래 일대가 중심지였다고 인식되어 왔다.⁵⁰⁾

따라서 기존의 점이지대론, 부산식적색마연호로 명명한 (공렬문)적

48) 서울문화유산연구원, 앞의 책, 2018.

49) 동래지역은 일찍부터 도시화되어 유적의 파괴가 심하지만, 수영강과 온천천 주변의 충적대지와 저구릉지는 최상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곳이다. 온천동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지석묘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후의 여러 소규모 조사를 보더라도 유적의 밀집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절유적도 비교적 대규모 분묘군이지만, 후대의 파괴를 감안한 유적의 원상은 온천2동유적의 규모가 훨씬 클 것이다.

50)釜山廣域市立博物館福泉分館, 앞의 책, 1997. 서영남, 앞의 논문, 2001.

색마연평저호, 수영강 일대가 중심권역이었다는 점을 통해 청동기시대 후기의 부산지역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후기를 대상으로 ‘○○문화’를 설정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러나 부산식적색마연호라는 지역화 된 부장토기가 뚜렷한 분포권을 이룬 것은 특정 집단의 범위이든 공통된 제의권이든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본고에서는 타 문화의 요소를 받아들여 부산 자체의 문화를 전개시킨 결과 부산식적색마연호라는 지역 형식이 생성되고, 이것을 석관묘의 부장간에 부장하는 지역화 된 습속의 전개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치지만, 추후 대표유적의 명칭을 이용한 ‘온천동문화’ 또는 중심권역을 강조하는 ‘수영강문화’ 등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VI. 맺음말

이상에서 부산은 주변 지역에 비해 분묘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단벽쪽에 판석을 이용한 부장간을 만들고 그곳에 (공렬문)적색마연평저호를 부장하는 석관묘가 일정한 범위에 밀집하여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호형의 무문토기로 보고되기도 하였던 것을 적색마연토기로 바로잡으면서 기형과 태토 및 정면기법에서 부산지역의 지역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공렬문)적색마연평저호에 부산식적색마연호라는 형식명을 부여함으로써 서부산 일대를 東限界로 하는 함안식적색마연호 분포권과도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거지에서 보이는 점이지대적인 특징도 있지만, 부산의 청동기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특징은 적색마연평저호에 있음을 주장하였고, 유적의 밀집도, 주거지의 분포, 부산식적색마연호의 분포를 통해 수영강 일대를 중심권역으로 추정하였다.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복원은 앞으로의 과제이겠지만, 이를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은 (공렬문)적색마연평저호이다.

본고를 작성하면서 이전의 보고문을 검토하다보니 이미 1970년대에 괴정2동 적색마연평저호를 통해 무문토기적 특징과 적색마연토기적 특징이 혼재하는 점이 부산지역의 특징으로 지적된 부분이 유난히 눈에 띄었다.⁵¹⁾ 지역색에 대한 선학의 혜眼이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50여년에 가까워진 지금에서야 그 의미를 이해하였다고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고 자료 하나하나에 대한 집중력이 부족하였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

끝으로 본고는 자료의 소재파악 및 유물열람 등에서 아래에 명기한 분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었다.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린다. 복천박물관 김동윤, 부산박물관 하인수·임수진·강석범,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안재호, 부산대학교 박물관 안성희, 국립김해박물관 이현태, 국립진주박물관 이정근, 서울문화유산연구원 김한상,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최경규.

| 참고문헌 |

- 慶南文化財研究院, 『東萊 古邑城址』, 2007.
 _____, 『古村遺蹟(Ⅲ地區)』, 2009.
 _____, 『古村遺蹟(Ⅰ地區)』, 2010.
 _____, 『기장 청강·대라리 유적(Ⅰ지구)』, 2010.
 _____, 『기장 청강·대라리 유적(Ⅲ지구)』, 2011.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老圃洞 遺蹟』, 2007.
 국보학술문화연구원, 『기장 내리 339-5번지 유적』, 2018.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機張 盤龍里遺蹟Ⅱ』, 2010.
 _____, 『蔚山 虎溪·梅谷洞 複合遺蹟(上)』, 2011.

51) 金廷鶴, 앞의 책, 1972, 100~101쪽.

- _____, 『機張 堂社里 188-1番地 遺蹟』, 2015.
- _____, 『釜山 杜邱洞聚落』, 2018.
- 동양문물연구원, 『부산 연지동유적(A·B구역)』, 2013.
- _____, 『부산 노포동 91-6번지 유적』, 2017.
- 朴商憲, 『釜山市 甘川洞 支石墓』, 『考古美術』 7-1, 1966.
- 朴宣映, 『南韓 出土 有柄式石劍 研究』,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2004.
- 배진성, 『咸安式赤色磨研壺의 分析』, 『韓國民族文化』 32, 2008.
- 裴孝元, 『5世紀代 釜山地域 墳墓出土 大壺의 副葬樣相과 意味』, 『考古廣場』 22, 2018.
- 福泉博物館, 『機張 清江里遺蹟』, 2009.
- _____, 『변진독로국』(2018 복천박물관 학술연구총서), 2018.
- 부경문물연구원, 『機張 佳洞 古墳群』, 2014.
- _____, 『固城 鳳東里 東村遺蹟』, 2016.
- 釜山大學校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 1988.
- _____, 『勒島住居址』, 1989.
- _____, 1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언양-부산)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8.
- 釜山博物館, 『東萊 溫泉洞遺蹟Ⅱ』, 2013.
- _____, 『分節遺蹟』, 2013.
- _____, 『노포동고분군 2차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8.
-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加德島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 1992.
- 釜山直轄市立博物館, 『釜山老圃洞遺蹟Ⅱ』, 1988.
- _____, 『釜山 杜邱洞 林石遺蹟』, 1990.
- _____, 『伽倻文化圈遺蹟精密調査報告書』, 1991.
- 釜山廣域市立博物館福泉分館, 『釜山の 先史遺蹟과 遺物』, 1997.
- 서영남, 『釜山の 靑銅器時代 遺蹟과 遺物』, 『港都釜山』 17, 2001.
- 서울문화유산연구원, 『부산 온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 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2018.
- 宋永鎮, 『韓半島 靑銅器時代 磨研土器 研究』, 慶尙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6.
- 沈奉謹, 『密陽 南田里와 義昌 平城里遺蹟 出土遺物』, 『尹武炳博士回甲紀念論叢』, 通川文化社, 1984.
- _____, 『日本 彌生文化 初期의 磨製石器에 대한 研究 - 韓國 磨製石劍과 關聯하

- 여-], 『嶺南考古學』 10, 1989.
- 安在皓,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 慶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91.
- 禹枝南, 『1. 彩文土器의 연구 현황』, 『固城 頭湖里 遺蹟』, 慶南考古學研究所, 2000.
- 울산대학교박물관, 『機張 芳谷里遺蹟』, 2007.
- _____, 『기장 가동유적 I』, 2008.
- 蔚山文化財研究院, 『釜山回東洞·石垵洞遺蹟』, 2013.
- _____, 『機張鳴禮里遺蹟』, 2013.
- 尹郢映, 『釜山 槐亭洞貝塚出土 丹塗磨研土器』, 『古文化』 40·41合輯, 1992.
- 李秀鴻, 『青銅器時代 檢丹里類型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12.
- _____, 『釜山 青銅器時代 後期文化의 地域相』, 『港都釜山』 28, 2012.
- _____, 『부산지역 청동기시대 무덤 문화 검토』, 『땅 속에서 찾아낸 부산역사의 재발견』(제40회 부산 시민의 날 2019 학술심포지엄), 부산박물관, 2019.
- 河仁秀,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9.
- 한국문화연구원, 『機張 盤龍里 망모산遺蹟』, 2017.
- 한겨레문화재연구원, 『釜山 鳴藏洞 556-17番地 遺蹟』, 2012.
- _____, 『釜山 美音洞 1180番地 遺蹟』, 2013.
- 황창한, 『청동기시대 석기로 본 부산의 지역성』, 『港都釜山』 31, 2015.
- 황창한·정대봉, 『부산의 청동기문화』, 『기장 장안인의 옛 흔적』(기장 명례일반산 업단지 발굴조사 기념도록), 울산문화재연구원·부산박물관·울산대학교 박물관, 2013.
- 金廷鶴, 『韓國의 考古學』, 河出書房新社, 1972.
- 杉原莊介, 『日本農耕社會의 形成』, 吉川弘文館, 1977.
- 有光教一, 『朝鮮磨製石劍의 研究』, 京都大學文學部考古學叢書 第二冊, 1959.

투고일 : 2019. 08. 21. 심사완료일 : 2019. 12. 05. 게재확정일 : 2019. 12. 17.

| Abstract |

A Study of Red Burnished Jars excavated in Busan

Bae, Jin-Sung

About 50 Bronze Age tombs have been identified in Busan. As the types of tombs are diverse and large groups of tombs have been identified, data conditions are better than before. Most of the tombs are stone coffins. Its biggest features are separate space installed on the side of the wall and red burnished jars. It is particularly unusual that bottom of these red burnished jars are flat. These red burnished jars are not visible in other areas and are only found in Busan. These pottery are mainly distributed in Suyoung River within Busan. It is also distributed in Gangseo-gu area in the west, but not in Gijang area in the east. Red burnished jars, which shows this local characteristic, can be called Busan type red burnished jar in contrast to Haman type red burnished jar, which distributes to Gangseo-gu.

As for the characteristics of Busan's Bronze Age, views are growing that it can be seen as a transition belt because both Songguk-ri Culture and Geomdan-ri Culture are visible.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mix of dwellings of both cultures is a feature of Busan's the late Bronze Age. However, it is Busan type red burnished jars that represents the late Bronze Age in Busan. Its central area is determined by Suyeong River area, which is the center of distribution of red burnished jars, while both Songguk-ri type house and Ulsan type house are identifie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Busan in the late Bronze Age through transition belt, Busan type red burnished jar, and Suyoung River area.

Key-word : Busan Type Red Burnished Jar, Red Burnished Jars, Transition Belt, Busan, Suyoung River